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2주일
제33권 2호(다해) 2012.12.9

[묵상]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세례자 요한은 외친다.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자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이사야 예언자에 의하면
그 길은 골짜기로 패어서도,
오르기 힘든 산과 언덕이어서도 안 된다.
굽은 데는 곧게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데워지지 않은 골짜기가 있는지
내 안에 오시려는 그분을
얼마나 높은 곳에 상으로만 모셔 놓았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돌아 왔는지
혹은 그분이 내 맘을 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애타하셨는지
예수님과 소통의 길은
아직도 얼마나 거칠기만 한지.....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나의 회개는
예수님과 깊고 넓고 거친 골짜기에서
떠도는 황량한 메아리처럼
이번 대림시기에도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인가.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주정에 & 김재철,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정익순
주 일 낮 미사	(연)조순섭 카타리나, 송봉규 요셉 & 송공탕 카타리나, 이정희, 한창수 시몬, 이정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조지 G.가보라, 주용범 아브라함, 임규호 그레고리오 & 임승자 마리아, 전시용 요한, 이진행 헨라리오, 낙태된 영혼들 (생)이윤조 클라라, 벅락 오바마 & 헨리 클린턴, 이광웅 요셉, 유영근 우르바노, 민석준 토마스 & 미애 가정 & 민영준 마르코, 한길미아 베로니카, 한국의방선교회 미주지역 후원자들, 제리 & 케를 코겐 가정, 김혜원 비아트리카, 이행자 리드비나 & 하정화 겐마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바룩(Baruch) 5,1-9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의 귀양살이, 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1,4-6.8-1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루카(Luke) 3,1-6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9	123	130
봉헌	나를 받으옵소서	269	269
성체	주님의 마음으로	289	309
파견	377	132	23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만남

따라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하느님 말씀과 함께 개인적
이고 공동체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본래적인 장소인 그리스도
교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참으로 영성 생활의 기초
가 되게 하기 위한 사목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부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사랑이 더 커지는 새로운 계절이 꽃피
어, 기도와 믿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점차 예수님의 인격
과 갖는 유대가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교회사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권고합니다. 이
는 특히 교부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참으로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자문하곤 했
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는 성경
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이 “매일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도
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귀부인 레타에게 딸
의 교육에 관하여 이렇게 충고합니다. “딸이 반드시 매일 성경
의 몇 단락을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 기도한 다음에는
독서를 하고, 독서한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 보
석과 비단옷 대신에 거룩한 책들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예로
니모 성인이 네포시아노 사제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을 매우 자주 읽으십시오. 아니, 거룩한 책이 당신의 손
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성경 연구에 삶을 바쳤고, 교회에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이른바 불가타(대중 라틴 말 성경)를 주었던 이 위대
한 성인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영성 생
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모든 성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합시다.

이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양분을 얻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리스도교 제3천
년기를 시작하면서 희망하셨던 “숭고한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회개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루카 3,3)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하길 바랍니다. 궁극적 목표인 사랑을 향해가면서 변화하고 또 변화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metanoia)를 의미합니다. 자아인식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알고 초월적 신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명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4복음서 중 공관 복음서는 우리에게 다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회개하라! (metanoiēte)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으로 당신의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지만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말은 “무엇을 찾느냐?”였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요한 1,38)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와서 보아라”(요한 1,39)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회개, 곧 정신과 마음의 변화 과정은 부르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결정권을 가진 하느님으로부터의 초대와 사람의 근본 곧, 정신과 마음의 중심 부분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동시에 뜻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덜 가치 있는 것에서 나와(분리), 하느님에게로 향함(애착)이 포함되며, 기질이나 마음가짐 같은 내적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이 드러나는 외부변화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 생활 곧, 충만한 삶, 인간적 성취감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새 삶으로의 희망은 영적인 존재로서 저 너머로 가는, 자신을 초월하는, 절대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인간 능력에 일치하고 목적, 진실, 사랑, 가치 같은 넓은 의미의 영역과도 일치합니다.

회개(metanoia)는 ...에서 ...으로 라는 패턴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본위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피상적인 것에서 심연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완전함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노예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정체상태에서 새 삶으로, 이상화된 자아의 묶임에서 참된 자아의 수용으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편협한 시각에서 보편적인 시각으로, ‘나’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더 큰 부분으로의 변화입니다.

매일 꾸준히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장치나 방어적 태도를 떨쳐버리려는 마음의 투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행동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개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단번에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을 재평가하는, ‘통과하는’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야망이나 바리사이적 열정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존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거저 받은 선물 안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2주일
(다해)**

오늘 우리는 두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8일(화)**

- 참회에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전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보속 : ○루카복음 통독 ○선행 1회 ○주모경 기도
두가지 이상 선택하여 실행하기

◆ **대림특강**

- 일시 : 오늘 주일(9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 오향숙 마우라 본당 수녀님
- 주제 : '기도의 마음 자세'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 일시 : 12월9일(주일) 오후 2시~5시, 강당
- 내용 : '골든벨' 퀴즈대회
- 문의 : 꾸리아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에 초대합니다.**

- 일시 : 12월15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많이 참석하시어 주일학교학생들을 격려해주시시오.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멕시코선교활동(25주년) 도움시다.**

- 행사내용 : 선물용 참기름과 공예품 판매(멕시코 현지지에서 생산된 무공해 유기농 제품)
- 일시 : 12월15일 특전미사, 16일 주일미사 후
- 복자수녀회 수녀님들이 직접 본당에 오셔서 판매합니다.
- 문의 :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대림판공성사 출장관계로 수,목 평일미사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 12일(수), 13일(목), 19일(수), 20일(목) 4일간의 저녁미사가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배론청년회 펀드레이징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론청년회가 기금모금 일환으로 마련한 냉동만두와 냉동왕전빵 판매에서 \$1,020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만두를 기증해주신 분과 사가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배론의 밤 : 12월15일(토) 특전미사후 8시30분, 강당
- 준비물 : 음식(1인당 3~5인분), \$10~\$20 의 포장된 선물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당 청년회장 ☎(310)508-2123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카펫클리닝 : 10일(월), 11일(화)
- 전교우 대청소 : 16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점심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백삼위본당 구역/제단체 송년행사**

한해를 보내면서 전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단체 구역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2월30일(주일) 오후 1시30분, 장소 : 성전
- 대상 : 제단체, 구역, 개인
- 신청마감 : 12월9일(주일)까지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이상철 크리스토퍼 부총무 ☎(310)818-6902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9일(주일) : P.V. 2반(육개장 \$3)
주일학교(3학년 칠판볶음파스타)
- 12월16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주일학교(2학년 치킨케사디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운철 김 은 민기남 박종렬 엄영희 이귀분 정열모 황지영	김선제 김정웅 박광자 방정복 엄정자 이근모 정혜영 황학수	김영경 김종렬 박근식 배기엽 오일순 이남현 조소영 영희가보라	김 옥 김종문 박씨니 석순영 유근우 의 명 장영우 최기남	김원모 김주량 박인식 소성덕 유철희 윤 철 전정일 최영신	김윤진 노혜숙 박정희 송재훈 윤 철 전정일 최영신
성전헌금	강윤철 김주량 박정희 유근우 장영우 최기남	김선제 노혜숙 방정복 유철희 전정일 최영신	김 옥 민기남 석순영 이귀분 정열모 황지영	김원모 박광자 소성덕 이근모 정혜영 영희가보라	김윤진 박씨니 엄정자 의 명 조소영 조준제	김종문 박인식 오명섭 의 명 조준제
합계 : \$4,355	합계 : \$3,755					
미사헌금 : \$2,859	LA대교구 수도자 은퇴기금 : \$1,856					

* 명단(교무금/성전헌금)에 누락된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공지사항

- ◆ 한국학교 2012년(1학기) 단어경시대회 만점자 '잘했습니다.'
- 개나리 : 민지영 ● 해바라기 : 김지인, 남진우, 장민경, 최준민
 - 무궁화 : 이시우 ● 장미 : 박채원 ● 코스모스 : 김태미, 박정은, 장운서, 최부경 ● 민들레 : 이인수, 장준서, 전해원

◆ SAT II 한국어 성적우수자 '축하합니다.'

- 김명선, 김승미, 박인호, 배수빈, 성기완, 소운선, 유동진, 이세준, 한혜림

◆ 한인가톨릭 청소년신앙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3년 1월5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장소 : 가든그로브 수정교회(그리스도 주교좌 성당 예정지)
- 대상 : 8학년~12학년 * 12월16일(주일)까지 신청마감
- 준비물 : 주일학교에서 티셔츠 제공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2012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마감하여 주십시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2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1일 점심과 차'

- 일시 : 12월15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메뉴 : 육개장
- 매주 공동체 앞마당에서 거라지세일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5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5000 Clark Av. Lakewood, CA 90712)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티켓가격 : 부부당 \$150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커피와 신앙의 만남' 크리스마스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냐시오 커피 선물세트(케냐 6온스 \$10, 케냐+콜롬비아 각 6온스 \$20, 블루마운틴+케냐+콜롬비아 각 6온스 \$50)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계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쉼터조성, 사랑나눔실천, 성전건립 기금
- 문의 : 이냐시오 카페 ☎(323)731-4433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원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마태오 213-675-0498 12/7(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8(토) 오후 6시 그랜드월드부캐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4(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9(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홍광선 요셉 991-8556 12/29(토) 오후 5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2/4(화) 10:30 am 반미사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12/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진희 한나 634-6923 12/6(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2/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삼바오로 895-8624 12/9(주일) 오후 7시 토요스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1/2	주영애 첼마 818-640-3656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28(금)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토 377-6659 12/14(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2/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성미선 리디아 944-4577 12/15(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임엘렌 617-3568 1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흰 수염, 빨간 옷, 빨간 모자, 긴 장화를 신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몰래 굴뚝을 통해 선물을 놓고 가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



바로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이

신 니콜라오 성인(축일은 12월 6일)입니다. 일명 '산타클로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성(聖) 니콜라오(Sanctus Nicolaus, 라틴어)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서기 270년 소아시아 지방 리치아(Lycia)에서 태어난 니콜라오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후 가난한 사람들을 밤몰래 도왔습니다.

니콜라오 성인에 관한 수많은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딸을 둔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해 한 명도 결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오는 그 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성격의 그는 요란하게 소문을 내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선행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집으로 가서 한 명의 딸이 결혼하기에 넉넉한 돈을 담 너머로 던져 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둘째 딸이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을 던져 놓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선행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세 딸의 아버지는 은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셋째 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딸의 결혼 지참금을 던져주기 위해 그날 밤 방문했던 니콜라오는 결국 아버지에게 들키게 됩니다. 당황한 니콜라오는 이 일을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미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니콜라오는 더 많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사제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후에는 미라(지금의 터키 지방, 사도 27,5)의 대주교가 됩니다. 주교가 된 후에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미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칩니다. 이러한 성인의 헌신적인 삶과 자선행위에서 우리는 산타클로스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Christmas)는 어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드리는 미사입니다. 미사, 즉 성체성사의 본질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주듯이, 우리도 가난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또다른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글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

◆그림 : 오근실 마리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영혼의 품질 관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옛 생각이 떠오른다. 통행금지과 판공성사(辦功聖事) 표를 받기 위한 찰고(察考)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1년에 단 하루 성탄절만 통행금지가 해제됐다. 자정만 되면 집 밖을 다니지 못하던 그 시절 성탄절 자정미사를 마치고 파출소 앞을 지날 때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특권처럼 느껴졌다.

판공성사 표를 받기 위해 찰고를 받던 기억도 새롭다. 신부님 앞에 가서 교리 테스트를 받았다. 찰고를 받기 전에 두툼한 교리책을 한 달 정도 뒤적이며 교리문답을 외어야 했다.

통과하면 성사 표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성사 표를 받지 못했다. 찰고를 통과 못하면 다음 주에 재도전해서 통과해야만 했다. 옛날에는 고해소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이처럼 어려웠다. 그러니 고해소에 들어가면 감격스러워 쉽게 나오지 못했다. 어린 마음에 하느님과 부모님, 친구들한테 지은 죄를 낱알이 고백했다. 그러니 고해소를 나서는 마음이 후련했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 보는 판공성사는 형식적으로 흘러간다. 본당 판공성사 날이 돌아오면 퇴근 뒤 성당으로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통회를 한다. 교회와 가족, 이웃과 사회에 잘못된 일을 생각한다. 차례가 돌아오면 고해소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열거한다. 신부님으로부터 보속을 받고 성당 구석에 앉아 보속을 한 뒤 집으로 돌아온다.

부끄럽지만 나의 판공성사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그러니 판공성사를 본 뒤 항상 양금이 남았다. "000 했습니다."는 식으로 죄를 나열하다 보니 내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사 보는 방법을 바꾸었다. 신부님께 면담성사를 청한 뒤 성사를 보니 이러한 양금이 많이 사라졌다. 면담성사를 통해 큰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내적 치유를 받는 은총의 과정이다. 형식적인 성사가 되지 않고 영혼의 치유를 체험하려면 성사 보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주 목욕을 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법. 영혼의 품질관리는 각자가 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고해성사를 잘 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중앙일보 · JTBC 부산총국장